일본의 문화유산

21401784 중국어 중국학과   
 정지훈  
  
일본은 원래 관광 적자 국가였지만, 2015년에 43년만에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동시에 관광객 수 또한 6년만에 한국을 2배로 앞지르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여러가지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일본은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여행, 관광 경쟁력 순위 136개국 중 4위를 기록하는 관광 대국이 되었고, 2019년 USA Google 여행 부분 검색 분야에서 몰디브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일본이 이렇게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노력도 있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일본만의 문화와 서브 컬쳐, 잘 보존되고 있는 전통 문화와 자연 경관들, 지역만의 각기 다른 특색 등 일본이라는 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낄 요소가 충분했기에 지금에 이르러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여러가지 매력적인 관광 자원 중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의 문화, 자연 유산 중 일본의 문화유산을 알아보았다.  
  
 1. 호류지: 호류지는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에 있는 불교 사찰이다.  
쇼토쿠 태자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으며, 금당, 5중탑 등이 있는 서원과 몽전 등이 있는 동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의 아스카 시대를 상징하는 아스카 양식의 대표작이며, 호류지의 서원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호류지의 건축물은 1993년 ‘호류사 지역의 불교 건축물’ 로 일본 최초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 히메지 성: 히메지성은 일본 효고현 히메지 시에 있는 성이다.  
일본의 근세 성곽의 대표적인 옛날 건축의 잔존물이며, 일본 성곽 건축 최 전성기의 양식과 구조를 가장 잘 보전하고 있다.  
히메지성은 춤을 추며 서 있는 백로처럼 보인다 하여 백로성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1993년 성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성 내부에도 8개의 국보와 74채의 중요 문화재 등이 있다  
  
3. 고대 교토의 역사 기념물: 교토부 교토시, 우지시, 시가현 오쓰 시에 있는 ,8세기 헤이안 시대부터 19세기 까지 약 1천년간 남아있는 17개의 절과 신사 등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정되었다.

4.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역사 마을: 기후현 히다 지방의 오노 군 시라카와 촌의 시라카와고 와 도야마현 난토 시 고카야마에 있는 갓쇼즈쿠리로 된 지붕을 가진 마을이다.  
갓쇼즈쿠리는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지붕의 양식으로 지붕의 경사를 급경사로 하여 폭설에 의해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양식이다.  
이러한 지붕 양식과 일본 전통가옥,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고 유네스코 등록 후 관광객들이 몰리고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5.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원폭돔) : 히로시마시 나카구 나카지마에 있는 평화 기념관이다.  
 1915년 건설된 일본 히로시마의 상업 전시관이었지만 1945년 8월 6일 제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반파되고 남아있는 전쟁 유적이다.  
1966년 히로시마 시의회 에서 원폭 돔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 후 2년, 3년 주기로 복원 공사를 하며 당시 원자 폭탄을 맞은 그 모습 그대로 완벽히 보존 되고 있다.  
1996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 되었다.  
  
6. 이쓰쿠시마 신사: 이쓰쿠시마 신사는 히로시마현 하쓰카이치 시의 이쿠쓰시마에 있는 신사다.  
헤이안 시대 말에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세운 신사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도리이로 유명하다.  
신사가 있는 이쿠쓰시마 섬은 일본의 삼경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유명한 관광지였고,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7.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 고도 나라의 역사 기념물은 710년~784년 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사원 등이다.  
5곳의 사찰, 1곳의 신사, 1곳의 궁전, 1곳의 숲 총 8곳의 유적이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8. 닛코의 신사와 사찰: 닛코의 신사와 사찰은 도치기현 닛코시에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신이 안장된 능인 닛코 도쇼구, 슈켄도(일본의 종교)의 성지인 닛코 후타라산 신사, 쇼도가 창건한 사찰인 린노지. - 3곳의 유적이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도쿄에 있는 학교들의 수학여행 장소로 유명하다.

9. 류큐 왕국의 구수쿠 유적지와 관련 유산: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오키나와 중심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흩어져 존재하는, 류큐를 지배했던 류큐 왕국의 사적지와 구수쿠 등이다.  
2000년 5곳의 구스쿠(성), 2곳의 석조 기념물, 2곳의 문화 유적으로 총9곳의 유적이 류큐 왕국의 구스쿠 및 관련 유산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0.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와카야마현, 나라현, 미에현에 걸치는 3개의 영지(요시노/오미네,쿠마노산잔,고야산)과 그 영지들을 이어주는 참배길로 구성된 세계유산 이다.  
스페인의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성지순례길과 함께 유이하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참배길이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1. 이와미 은광과 문화경관: 시마네현 오다시를 중심으로 니마 정과 유노쓰 정 지역까지 분포 되어있는 은광으로, 전국시대 후기부터 에도시대 전기까지 일본 최대 규모의 은광이었다.  
17세기 전반 정성기에는 연간 약 38톤의 은을 산출했고, 이는 전 세계의 1/15에 달하는 양이다.  
1969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2. 히라이즈미: 히라이즈미는 이와테현 남서부에 있는 옛 지명으로 오늘날의 히라이즈미 정 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헤이안 시대 말기의 오슈 후지와라 일족이 번영한 시대의 사원이나 유적군이 다수 남아있으며, 그 중 4곳의 사찰과 1곳의 산이 2011년 세계유산으로 등록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4곳의 유적을 확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후지산: 후지산은 혼슈 중앙부와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의 경계에 있는 휴화산이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옛날부터 다양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어온 영산이며, 일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일본 정부에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였지만 독자성이 없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로 탈락 됐었다.  
이 후 후지산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순례객들이 온다는 것과 각종 그림과 문학에 등장하여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201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에는 여러가지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이 있다.  
  
일본은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를 해왔고,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자연경관과 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있다.  
  
2015년부터 일본에게 외국인 관광객 수를 크게 추월 당하기 시작한 한국 또한 일본의 관광정책에서 배울 점 (오모테나시, 지역관광 활성화 등) 이 있다면 당당히 수용하고 배우고 벤치마킹 하여 한국의 관광정책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써서 외국들에게 가장 오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그런 관광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